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다니엘 21일 기도회 시상식 (성전에서 21일 완주)

어린이부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은총 (완주매달)
청소년부 : 한성결 한희락
청장년부 : 박제연 손준경 임명순 정현숙

3.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및 성탄절 성전장식 (교회학교, 모든성도)

오늘 주일(11.23)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성탄절 성전 장식이 있습니다.

성탄점등예배 : 11월 30일(주일)

점등위원 : 이재아, 이재희
예식사회 : 이재우, 한은총

남북성탄예배 : 11월 16일(화) 저녁 7:00 충현교회 / 모퉁이들선교회

주 관 - 모퉁이들선교회 / 장소 : 충현교회
사전신청 - 모퉁이들선교회 홈페이지 참고

성탄전야예배 : 12월 24일(수) 저녁 7:30 (가족찬양축제)

성탄감사예배 : 12월 25일(목) 오전 11시 / 세례예식, 성찬예식

4.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초)

다음 주일(11.30)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온 세상의 구주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5. 제21회 북한선교대회

다음 주일(11.30) 저녁 7:30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제21회 북한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으로 송출되며 한승훈 담임목사 부부는 전주 바울교회에 다녀옵니다.

6. 2025년 11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9.12 ~ 10.11)

11.01(토) 이가을 권철 11.03(월) 김지민 학생 11.05(수) 오현진 형제
11.05(수) 김우빈 어린이 11.05(수) 이윤호 어린이 11.12(수) 한희락 학생
11.13(목) 이예린 어린이 11.20(목) 한진영 어린이 11.24(월) 위하운 학생
11.30(일) 박영대 집사(-10.11)

결실과 감사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1/23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성탄절장식 (교회학교 주관)
11/25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11/30	대림절1주 - 소망의 초 성탄장식 점등예배 21회 북한선교대회(전주바울교회)
12/01	찾아들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12/07	대림절2주 - 평화의 초
12/14	대림절3주 - 기쁨의 초 성서주일
12/16	남북이 함께 드리는 성탄예배
12/21	대림절4주 - 사랑의 초
12/28	성탄감사주일 / 사무총회
12/31	송구영신예배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일~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11/23	임명숙 집사
11/30	김혜숙 권사
12/07	정현숙 권사
12/14	박제연 집사
12/21	김옥화 집사
12/25	이광근 안찬자
12/28	손준경 권사
12/31	임명자 집사
01/04	임명숙 집사



주사랑 8권 47호 | 2025년 11월 23일
창립 2017.11.25 |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인도: 담임 목사

- ※ 목 도 예레미야 23:4-6 인 도 자
- ※ 송영찬송 찬 38장 다 같 이
(예수 우리 왕이여)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2 시편 2편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304장 다 같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중고등부 교육부장)
- ※ 성경봉독 이사야 65:17-25 (구 1047) 임명숙 집사
- 특 송 클라리넷 "십자가의 전달자" 한희락 학생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새 왕이 다스리는 새 나라 담임 목사
- 봉헌찬송 찬 401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함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5.11.22. AM 6:00 기준)

- 십 일 조 : 강선주 한희락 / 이기을 장사라 무명
- 주정현금 : 강선주 김혜숙 문재호 박재연 손준경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 이기을
- 감사헌금 : 김주형 박태성 이광근 박재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생일)
- 추수감사 : 강선주 김옥화 김혜숙 손준경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박재연 임명자
장사라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창수 오경자 한희락 무명(2)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재연 임명순
- 선교헌금 : 오복상방아경 무명
- 건축헌금 : 김혜숙
- 전도헌금 : 이옥성 장체규 장세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 후원헌금 : 대흥교회(추수감사) 새한교회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32:1-6 (구 131)
말씀제목 사람이 만드는 신 우상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1:9-20 (신 324)
말씀제목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

목요 구역예배

오후 2:00 말 은 이
성경봉독 하박국 3:16-19 (구 1305)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참 감사에 이르게 하소서

금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기복음 23:33-43 (신 133)
말씀제목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출애굽기 강해**
23일(일) 출 32:1-6 사람이 만드는 신 우상
24일(월) 출 37:7-14 하나님의 긍휼
25일(화) 출 32:15-29 화개파 결단과 축복
26일(수) 출 32:30-35 내가 앞서 가리라
27일(목) 출 33:1-6 준엄한 말씀 앞에서
28일(금) 출 33:7-11 화의 산령한 예배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목상)

국내선교(오주교포함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조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교육마을

- ⑦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가족으로써 교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마 12:49~50)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 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니라 하시더라
- ⑧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길 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비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마 13:19-23)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니 ()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 ⑨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 14:3~4)
전에 헤롯이 ()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 ⑩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떤 기적을 베풀어주셨나요? (마 14:19~21)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시고 떡을 떼어 ()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나 되었더라
- ⑪ 예수님은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으로써 어떤 권세가 있으심을 세상에 계시하셨나요? (마 14:33)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로소이다 하더라
- ⑫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수많은 물러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 14:35~36)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 다만 예수의 ()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을 얻으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마 11:5~6)
맹인이 () 못 걷는 사람이 () 나병환자가 ()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 죽은 자가 () 가난한 자에게 ()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②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가 예언한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마 11:12~14)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가 곧 이 사람이니라
- ③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나요? (마 11:27~30)
내 아버지께서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④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먹는 모습을 고발하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 11:6-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이니라 하시니라
- 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취지가 무엇인가요? (마 12:12~13)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되어 성하더라
- ⑥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귀신들의 앞잡이라고 모독하는 아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나요? (마 12:31~3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누구든지 말로 ()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 하리라

신앙의 향기 - 이스라엘의 절기 ② - 안식일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 헬라어로는 '삽바톤'입니다. '휴식하다',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이 끝난 날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화로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의 의미를 갖습니다(창 2:2~3).

하나님의 계획 속에(창 15:13)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출 12:40~41, 갈 3:17).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 취급을 당하며 노역과 학대의 연속이었습니다(출 1:10~14).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출 2:24~25),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출 3:9~10).

안식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출 20:8).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나이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나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출 20:1~17). 십계명과 안식일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입니다(출 31:16).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있고, 안식일을 어기면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죽음의 형벌의 결과가 따라오는 중요하고도 엄중한 계명입니다(출 31:12~17).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안식하게 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돕는 모든 가축과 도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마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안식일의 규례를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종들과 가축들까지도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출 20:8~11).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 주시지 않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출 16:29~35).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육신의 세계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전환되는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24~28, 눅 6:1~5).

다음 주에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304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구	역	장
성 경 봉 독 하박국 3:16 ~ 19 (구 1304)	말	은	이
참 감사에 이르게 하소서				
삶 의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헌 금 찬 양 찬 546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시편 기자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2~23).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드리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 찬송>의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은 모든 순간과 상황과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처럼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말씀을 들어서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기세등등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악인을 물리쳐 주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성루에 서서 지켜보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악인이야 어떻게 살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 세상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자신의 고민과 불만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므로 감사합니다. 환난을 생각하니 그의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였으므로 감사합니다.

2.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유물이 없으니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를 표시할 물질도 없습니다. 소유물이 없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소유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없어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17절). 아무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것은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없다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전에 가졌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지금은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찾아 읽기/ 데살로니가전서 5:18)

3. 새로운 에너지

말씀을 받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지자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높여 찬송합니다.

기쁘고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가 당연히 솟아납니다. 새 힘은 약을 먹어도 얻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여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여도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에는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새 힘이 주어짐을 확신한 선지자는 뭉개기 기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사슴처럼 높이 뛰게 하심을 느낍니다. 전에는 망루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니 큰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4. 맺음말

현실에 대한 불만은 감사를 차단시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함께 찾아 읽기/ 시편 50:22~23)